2007 문화예술계 결산 ▣공연

광주 감동시킨 뮤지컬 '캣츠'

국제공연예술제 등 대형 페스티벌 '절반의 성공'

상설공연 인기… 국악관현악단·'신명' 공연 취소 잡음

올 지역 공연계의 핫 이슈는 지난 9월 본사 주최로 열린 해외 오리지널 뮤지컬 '캣츠'였다. 최다 관중 기록인 1만 9천명을 동원하며 광주를 뜨겁게 달군 '캣츠'는 대형 오리지널 작품을 볼 기회가 없었던 시민들에게 색다른 문화 경험을 제공했다.

'캣츠'의 성공으로 오는 24일부터는 '브로드웨이 42번가'가 공연되며 내년에도 '로미오와 줄리엣' 등 대작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시비가 투입된 굵직한 공연 행사들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장 규모가 컸던 광주국제공연예술제는 축제의 핵인 프로그램 선정이 주먹구구 식으로 이뤄진데다 이마저 특정 장르에 편중되는 등 운영에 난맥상을 드러내 총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올해 처음 시 주최로 행사를 치른 정율성광주국제음악제는 예년보다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역 음악인들을 좀 더 결합시키는 등 풀어야 할 숙제를 남겼으며 광주여성합창대회는 개최 필요성, 운영 등과 관련, 시의회에서 집중 성토의 대상이 됐다.

정기적으로 관객들과 만나는 공연이 많아진 것은 지역민들에게 좋은 선물이었다.

매주 토요일 첨단 공원에서 열리는 '첨단골 음악회'는 100회를 넘었고 옛 한국은행 자리에서 열리는 '광장음악회', 7개월간 펼친 '우리가락, 우리마당', '무등산 풍경소리', '광주시립교향악단 화요음악회' 빛고을 국악전수관의 '목요상설 국악공연'과 '수요열린 국악 한마당'도 눈길을 끌었다.

낭보도 전해졌다. 광주 출신 피아니스트 임호열씨와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름씨가 프랑스 에피널 콩쿠르와 알제리 이슬람페트렐라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김미숙하나무용단은 올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예향의 우수성을 알렸다.

지역 공연 단체를 대표할 만한 뚜렷한 공연이 없었던 가운데 작품 수준면에서는 아쉬운 작품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대학연극제를 신설한 지역 연극계가 극단별로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활성화를 주도한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클래식의 경우 독주회와 중주단 공연이 계속됐지만 대부분의 연주회가 천편일률적이서 '기획'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통적인 의미의 공연장을 벗어나 다양한 장소가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것도 눈에 띄었다. 클래식 음악 카페 베토벤과 한울림, 광주극장을 비롯, 예술가의 작업실에서도 공연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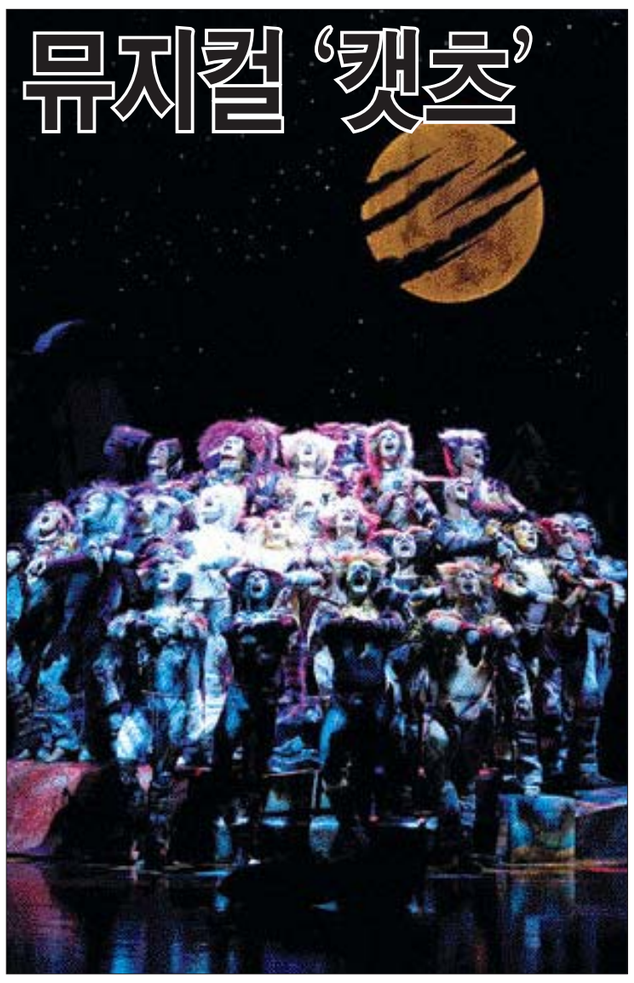
신임 수장을 맞이하면서 지역 예술인들의 많은 기대를 받았던 광주예총과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해 아쉬움을 줬으며 광주연극협회의 내홍도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지역 문화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것은 현재 수사중인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채용 관련 의혹. "명예 훼손이다"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관현악단, 나아가 국악계 전체의 이미지 훼손은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청 비정규직 문제를 담은 작품을 공연하려던 놀이패 '신명'의 대관 신청 취소와 관련된 논란도 계속 진행중이다.

작품 내용이 바뀐 '허위 대관 신고'라는 이유로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한 5·18 기념문화센터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해당 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전국의 문화단체들이 광주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등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올 한해 광주 공연계의 가장 큰 뉴스는 1만 9천명을 동원해 최다 관중 기록을 세운 해외 오리지널 뮤지컬 '캣츠'였다.

'아카데미 타악기 앙상블' 연주단의 공연모습.

미술관 변신을 위한 두드림

광주시립미술관 오늘·28일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아카데미 타악기 앙상블' 연주·성악·가요 등 무대

지난 10월 중외공원에 새 둥지를 튼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 시민들 곁으로 한발짝 다가선다.

예술작품만을 전시하는 미술관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문화마인드를 높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변신을 시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일과 28일 두차례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마련한다. 먼저 국악실내악단 '여디디야' 기획으로 20일 (오후 5~6시 미술관 본관 1층 로비) 열리는 공연에는 전문타악기 연주그룹 '아카데미 타악기 앙상블'이 참가한다.

'타악기로 만나는 따뜻한 클래식'을 주제로 열리는 공연에서는 마림바, 잼베이, 드럼 등을 이용한 신명나는 리듬과 다양한 클래식, 국악곡 등이 연주된다. 소외계층과 문화를 나누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미혼모들이 특별 손님으로 초청돼 자리를 함께한다.

이와 함께 시립미술관은 지역 미술· 문화단체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첫 행사로 오는 28일(오후 5시 50분~7시 미술관 본관1층로비) (사)광주미술관회와 공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광주미술관회는 미술 저변 인구를 늘리는 한편 시립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공동개최키로 했다.

광주미술관회는 지난 2003년 미술문화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창립된 단체로 미술애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성악, 기타 연주, 태평무 등 국악과 가요 등이 어우러진 무대가 펼쳐진다. 전체 공연 관람료는 무료. 문의 062-510-0144.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천원의 낭만' 송년공연

21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사)광주국제공연예술제의 '천원의 낭만' 송년공연이 21일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천원의 낭만'은 지역민들이 다양한 공연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티켓 가격을 천원으로 낮춘 공연으로 주최측은 천원의 낭만의 관객들이 해마다 열리는 광주국제공연예술제의 든든한 서포터즈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캐롤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 공연에서는 서울모테트합창단(단장 박치용 성신여대 교수)이 무대에 선다. 이날 공연에서는 '사랑의 인사', '노래의 날개위에', '남촌','지붕위의 바이올린'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아기예수', '오 거룩한 밤' 등을 들려준다.

지난 1989년 창단한 서울모테트합창단은 올해의 예술상 음악부분 우수상(2004),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음악부문 대통령상(2005년)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521-322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